

충청남도의 지명 유래와 변천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충청(忠淸)’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제(道制)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성종 14년(995)의 10도제에서 충남지역에는 하남도(河南道)가 설정되었다. 그 후 5도 양계 체제로 바뀌면서 5도는 도 경역 내 계수관(界首官)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도명을 만들었고, 고려 후기 충청 지역의 도명은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 양광(주)도[楊廣(州)道], 충청(주)도[忠淸(州)道] 등이 사용되다가, 충숙왕 원년(1314)부터는 ‘양광도’라는 도명으로 굳어져 조선 건국초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의 ‘충청도’는 조선초기인 1395년(태조 4)에 종전의 양광도가 바뀐 것이다. 양광도가 충청도로 개칭된 이유는 조선을 건국한 후, 태조 4년에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양주(楊州)·광주(廣州) 관할 고을을 양광도에서 갈라 경기(京畿)에 옮겨 붙이게 되자, 더 이상 양광도라는 도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충청도의 권역은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다.

조선시대 충청도의 도명은 일시적인 명칭 변경이 8도 가운데 가장 자주 있었다. 이는 종2품의 부윤이 부임한 경상도의 경주, 전라도의 전주와는 달리 충청도의 경우에는 도내의 계수관 고을인 충주·청주·공주·홍주가 모두 동등하게 정3품 목사가 수령으로 부임하다 보니, 계수관 고을의 승강(昇降)에 따른 도명 변경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전기에는 충공도(忠公道)·청공도(淸公道)·청홍도(淸洪道)라는 도명이, 조선후기에는 충홍도(忠洪道)·공홍도(公洪道)·공청도(公淸道)·홍청도(洪淸道)·충공도(忠公道)·공충도(公忠道)·홍충도(洪忠道) 등의 도명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강등되었던 고을 명칭은 대체로 10년이 지나면 원래의 명칭으로 복구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다시 충청도라는 도명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의 영남(嶺南), 전라도의 호남(湖南)처럼 충청도를 호서(湖西)라고도 불렀다. 흔히 호서는 제천의 의림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서쪽이

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 의림지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저수지로 손꼽힌다. 제방의 축조 시기는 서력 기원 전후까지 소급되며, 삼국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보수하여 사용했던 큰 저수지이다. 이같은 의림지의 위치로 보아 호서의 ‘호(湖)’는 의림지를 지칭한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한편, 호서라는 명칭이 금강 이남을 지칭하는 호남의 대칭으로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충청도의 별칭인 호서라는 명칭은 전라도 호남이란 별칭이 널리 사용된 이후 생긴 명칭이고, 호남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다분히 금강 이남이라는 데서 연유하기 때문에, 충청도도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견해보다는 호남과 대칭적으로 짝지어진 데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튼 조선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호서라는 표현은 조선후기에 이르면 보편화 되어 널리 사용된다. 이는 이 때에 이르러 명실상부하게 충청도 전체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는 예증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충청도에는 관찰사가 한 사람만 파견되어 통치되었으나, 행정상 편의에 의하여 충주·청주 관할권은 충청좌도, 공주·홍주 관할권은 충청우도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 좌우의 위치는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국왕의 입장에서 정해졌는데, 유교문화권의 국왕 자리는 상징적으로 밤하늘의 북극성에 비유되었으므로, 국왕은 항상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는다. 따라서 방위상으로 동쪽이 좌도, 서쪽이 우도에 해당했다. 그런데 1895년 5월에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충청도는 다음과 같이 충주부(20군)·홍주부(22군)·공주부(27군)로 나뉘었고, 각 부에는 관찰사(觀察使)가 파견되어 관내 고을을 통치하였다.

충주부(忠州府) : 충주군, 음성군, 연풍군, 괴산군, 제천군, 청풍군, 영춘군, 단양군, 진천군, 청안군, 여주군, 용인군, 죽산군, 음죽군, 이천군, 양지군, 원주군,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홍주부(洪州府) : 홍주군, 결성군, 덕산군, 한산군, 서천군, 비인군, 남포군, 보령군, 임천군, 홍산군, 서산군, 해미군, 당진군, 면천군, 태안군, 대흥군, 청양군, 예산군, 신창군, 온양군, 아산군, 정산군.

공주부(公州府) : 공주군, 연기군, 은진군, 연산군, 석성군, 부여군, 노성군, 옥천군, 문의군, 회덕군, 진잠군, 평택군, 보은군, 회인군, 영동군, 청산군, 황

간군, 청주군, 전의군, 목천군, 천안군, 직산군, 안성군, 진위군, 양성군, 진산군, 금산군.

그러나 이 23부제는 시행된지 1년여만인 1896년 8월에 다시 13도 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종전의 충청좌도 지역을 충청북도로, 충청우도 지역을 충청남도로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충청남·북도가 완전히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충청남도가 등장한 것은 125년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당시 충청남도는 37개군으로 구성되었고 수부(首府)의 위치는 공주군이었으며, 이곳에 위치한 충청남도 감영에 충청남도관찰사가 부임하였다.

[표] 1896년 충청남도 고을의 명칭과 등급

등급	군명 (고을수)	전결면적
1등급	공주군 (1)	1만결 이하
2등급	홍주군 (1)	7천결 이하
3등급	한산군 · 서천군 · 면천군 · 서산군 · 덕산군 · 임천군 · 홍산군 · 은진군 (8)	4천결 이하
4등급	태안군 · 온양군 · 대홍군 · 평택군 · 정산군 · 청양군 · 회덕군 · 진잠군 · 연산군 · 노성군 · 부여군 · 석성군 · 비인군 · 남포군 · 결성군 · 보령군 · 해미군 · 당진군 · 신창군 · 예산군 · 전의군 · 연기군 · 아산군 · 직산군 · 천안군 · 문의군 · 목천군 (27)	2천결 이하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통·폐합을 실시했는데, 1914년 4월 1일자로 전국의 군은 317개에서 220개로, 면은 4,336개에서 2,522개로, 동리는 61,473개에서 58,467개로 줄어들었다. 충청남도는 종전의 37개 군에서 평택군은 경기도로 이속되었고, 36개 군이 통·폐합되어 공주군 · 연기군 · 대전군 · 논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보령군 · 홍성군 · 청양군 · 서산군 · 당진군 · 예산군 · 아산군 · 천안군 등의 14개군으로 편제되었다. 이 때에 군의 명칭으로 대전군 · 논산군 · 홍성군(홍주+결성) 등의 지명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932년에는 충청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겼다. 충청도청의 대전 이전은 일제가 착취를 하기 위한 식민지 개발정책의 일환이었다. 한반도 강점 이후 일제는 경성(京城)을 중심으로 X자형의 철도망을 구축한 뒤, 이를 골간으로 식민지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청을 수원에서 경성으로(1910), 함북도청을 원산에서 나남으로(1920), 평북도청을 의주에서 신의주로(1923), 경남도청을 진주에서 부산으로(1925), 충청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1932) 옮기고, X축의 철도망 가까이로 옮긴 도청을 통해 착취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1963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산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되었고, 1989년 1월에는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었으며[대전직할시는 1995년 1월에 대전광역시로 명칭 변경], 2012년 7월에는 연기군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면서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었다. 2012년 12월에는 대전광역시에 있던 충청남도청이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에 새로 완공된 내포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2024년 현재 충청남도는 8개 시[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당진시], 7개 군[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으로 이루어져 있다.